

#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 IMF 이전과 이후 비교분석 -

## Structure of the consumption expenditure by income bracket

-Compar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IMF-

한양대학교 소비자 가족 주거학과  
강사 소연경

Dept. of Consumer Economics & Family Studies, Hanyang Univ.  
Lecturer : So, Youn Ky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 according to income bracket and the trade-off between expenditure items by analyzing expenditure patterns of the urban households as a result of the IM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omposition percentage and the amount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s after IMF decrease in all classes. But the change of composition percentage by the decrease of consumption expenditure is different in every class. The percentage of decrease of the upper class is higher than that of the lower class in an essential expenditure of household, which is food. And the percentage of decrease of the lower class is higher than that of the higher class in the discretionary expenditures such as clothes and education.

### I. 서론

지난 10년간 중상·하 소득계층의 실질 구매력이 꾸준히 향상되어왔으며, 이는 미래 기대소득의 과다

산정에 기인한 소비성향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성향은 가계의 실질소비지출에 반영되어 필수적 소비지출 이외의 선택적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소비지출패턴은 가계의 욕구

를 반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생활양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소비지출은 소비생활에 대한 행위와 의식 그리고 그 변화를 단순히 소비지출의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행동의 실태와 변화가 소득분포 및 취업구조, 교육수준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내지는 변동과 어떠한 관련아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한국 소비자보호원, 1991)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IMF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성향에 반영되어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특히 IMF는 가계의 소득감소와 크게는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실직가계 뿐만 아니라 실직의 가능성을 지닌 대다수의 가계가 실질소득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실질소비지출은 더욱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실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가계에서도 51.4%가 필수적인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에 대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광고정보, 1998, 5월호)는 의환위기로 비롯된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가계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현자, 1998). 이러한 가계소득감소와 더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물가의 상승은 가계지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즉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불리우는 경제적 환경의 급변은 전반적인 가계 소비지출의 위축을 가져왔다.

결국 가계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현재의 자원에서 미래 가계의 경제적 상황과도 고려하여 어떻게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이중적 역할을 떠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별 소비지출 배분 실태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크게 상이할 것이다. 그나마 고소득계층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체감이 작지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용기회가 불안정하므로 소비지출의 배분도 고소득층보다는 더 제한적이고 따라서 저소득층 가계의 복지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IMF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똑같이 경험하더라도 이로

인한 가계복지는 소득계층마다 상이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한 대부분의 소비지출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소득계층을 분리 연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개념으로서의 도시근로자에 대한 연구도 그 나름대로 연구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IMF체제하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즉 IMF이후 소득계층마다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으로 이로 인한 가계지출배분 또한 상이한 양상을 띄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F 전과 이후의 가계소비지출 패턴의 변화양상을 도시근로자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IMF 이후의 소비지출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계층별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이 IMF 구제금융이라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분석하며, 둘째, 소득계층별로 그 변화를 살펴보고, 셋째, IMF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첫째, 경제적 위기상황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둘째, 소득계층별 지출배분의 실태와 구성비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복지수준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득계층과 관련된 정책함의(policy implication)의 도출 및 경제적 복지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가계분석이론을 잘 설명한 Engel의 소비함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가계분석 이론

엔젤함수는 가계지출의 각 비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Elasticity of Demand)을 측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소득을 설명변수로 하여 가계의 비목별 또는 품목별 지출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서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C = \alpha_i + \beta_i \cdot Y_d + \mu_i \tag{1}$$

$$\log C_i = \alpha_i + \beta_i \cdot \log Y_d + \mu_i \tag{2}$$

$C_i$ 는 가구당 비목별 소비지출이며,  $Y_d$ 는 가구당 가처분소득을 말한다.

(1)식의 회귀계수 ( $\beta_i$ )는  $i$ 재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을 의미하며  $C$ 는  $Y_d$ 에 대한 1차 미분한 값을 의미하므로 ( $\partial C / \partial Y_d$ )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변화량을 설명해 줄 수 있다.

(2)식의 회귀계수 ( $\beta_i$ )는  $i$ 재의 소득탄력성을 의미하며 소득의 1%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변화량을 설명한다.

두 추정식에서 도출된 한계소비성향과 소비수요의 소득탄력성은 Allen과 Bowley(1935) 이래 그리고 널리 사용되어 왔고 소비수요탄력성은 Stone, Prais와 Houthakker(1971)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다.

본 논문은 (1)식에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으며, (2)식에서는 소득탄력성 추정하였다. 즉 (1), (2)식을 통해서 가계특성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소비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가계소비지출( $\sum_{i=1} C_i$ )과의 함수관계도 추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 모두를 산출하기 위해 두 개의 함수방정식을 추정하였다.

2. 선행연구고찰

가계의 소비지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실증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소비지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계의 특성

변수는 가계의 기호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도시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지출과 관련된 인구사회적인 영향요인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계층

김기옥·이승신(1990)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중 가계소득이 모든 비목의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교통통신비는 늘어나는 반면 교육오락비는 줄어들므로써 이 계층에서 교통통신비는 필수적 소비지출로, 교양오락비는 선택적 소비지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소득 계층은 낙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함으로써 식료품, 가구기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양오락에의 지출액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손상희(1993)는 가계소비패턴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그 중 하나인 사회적 강조 소비유형은 주로 고소득, 고학력, 화이트 칼라 가계의 사회적 승인의 욕구를 반영한 생활양식으로 보이는데(Hoyt, 1938; Veblen, 1953), 이는 과시적 소비를 지향하는 문화의 한 단면이 그들 집단에 있어서는 문화적 필수재적 성격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주인숙·양세정(1997)의 연구는 가구의 비목별 지출구성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소비지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소비지출 유형은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유형, 생필품비-우위적유형, 기타소비지출-우위적유형, 주거비-우위적유형, 교통통신비-우위적유형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유형과의 관련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계소득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즉 사회의 저소득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은 생필품비-우위적유형과 주거비-우위적유형의 가구들이었으며 이들 유형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생활의 기본재

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을 하는 기구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 소득계층에서는 교육교양오락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으며 반면 기타비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소비실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반영한다. 가계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기타소비 지출비와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미경(1998)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 식료품, 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의료비, 미용유지비, 교육 및 육아, 개인교통, 통신비의 11개 품목에서 구성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비의 비율은 식료품비와 개인교통에서 저소득층의 구성비가 고소득층에 비하여 1.3배, 2.2배로 보여 이 품목의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부담을 느낀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소득도 Keynes의 절대소득가설 이후에 꾸준히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되어왔다.

## 2) 가구주연령

가족생활주기를 반영하는 가구주의 나이도 또한 가계소비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성열(1982)은 가구주 연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비목의 지출이 증가하나 특히 식료품과 피복비에 대한 지출과 강한 정적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숙(1983)은 생애주기모형을 토대로 가구주의 연령별로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부의 연령에 따른 생활비 지출 면에서 주부의 연령과 월 소비지출액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지출 부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감소하고 비소비지출부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다.

Fan과 Stafford(1994)는 지출구성비의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대별 인원수는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을 밝혔다.

주인숙·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구조에서는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가구주 나이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단계인 230대인 경우 생필품비-우위적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자녀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450대 가구의 경우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유형에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45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횡단적자료(Cross-section data)인 도시가계자료와 미국의 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에서는 주로 가구주연령을 가족생활주기 대리변수 사용한다.

## 3) 가구원 수·소득원 수

최은숙(1986)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원수는 소득 다음으로 소비지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교통비의 변동이 모두 가족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Douthitt와 Fedyk(1988)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없는 가정의 소비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외식비, 내구재구입비, 성인의복비 항목들은 사치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음식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은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크므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외식비, 내구재구입비, 성인의복비의 3지출항목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자녀없는 가정에 비해 민감하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ino(1990)는 양부모와 두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 소득수준, 주부의 취업여부 등에 따라 어떠한 지출유형의 변화를 보이는가를 연구한 결과 필수항목에의 지출은 소득에 따라 큰 변동이 없었으나, 교육비나 잡비 등의 지출은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관련지출을 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in 외(1990)는 소득자 수에 따라 가계의 소비

지출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는데 여성의 취업자수와 소득자 수에 따라 가계의 지출비목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가구주직업·가구주학력

최은숙(1986)은 교육수준은 가계의 기대소득과 가구의원의 선호를 형성하며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류재술(1992)은 봉급자 가구와 노무자 가구의 소비구조 변동추세에서 볼 때 이들 가구 모두 식료품에 가장 많은 소비지출을 배분하고 있었으며, 그러면서 이들 가구 모두 식료품비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로 소비구조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성민(1992)은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중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하일수록, 외의와 교양오락비의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주인숙·양세정(1997)은 가계의 소비지출 유형을 5개 군으로 분류하여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으나 가구주 직업은 이들 소비지출 유형과 무관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들의 탄력적이지 못한 가계소비지출 양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소득은 가계소비지출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경제적 변수이므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가구주 직업,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등은 가계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커다란 요인의 하나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생활양식을 반영한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로 IMF이전의 1997년과 IMF이후의 1998년 도시가계연보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연보 자료는 전국의 전 도시에 거

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한 것이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비목별 지출은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하여 소득수준, 가구 인원수 등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은 면접조사에 의한 것이다.

조사대상 중 가계소득 관련자료가 부실한 비근로자 가구와 20세 이하의 가구를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997년에는 3563근로자가구와 1998년에는 3721근로자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PC Program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을 통해서 파악하였고, 전체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를 구하기 위하여 percentile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소득계층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소득계층은 원종구(1997)와 양세정(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계소득을 '근거로 하위 30%를 저소득층, 상위 20%를 고소득층, 나머지를 중간소득층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비지출비목은 식료품, 외식,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이며, 총소비지출액에서 비소비성지출은 제외되었다. 여기서는 11가지의 월평균 소비지출액과 총소비지출액의 구성비를 조사하였다. 또한 엔겔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모든 변수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ariation Inflation Factor(VIF) 지수를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엔겔의 소비함수를 바탕으로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해 2개의 최종 회귀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Y_1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e \quad \text{식(4)}$$

$$\text{Log} Y_2 = \alpha + \text{Log} \beta_1 X_2 + \text{Log} \beta_2 X_3 + \text{Log} \beta_3 X_8 + \text{Log} \beta_4 X_9 + \text{Log} \beta_5 X_{10} + e \quad \text{식(5)}$$

$Y_1, Y_2$ : 소비지출액,  $\alpha$ : 상수,  $X_1$ : 서울지역(기준-기타),  $X_2$ : 가구주연령,  $X_3$ : 가구주교육수준<sup>2)</sup>,  $X_4$ : 관리전문직(기준-사무직),  $X_5$ : 준전문직(기준-사무직),  $X_6$ : 서비스직(기준-사무직),  $X_7$ : 단순근로 및 노무직(기준-사무직),  $X_8$ : 가구원수,  $X_9$ : 취업인수,  $X_{10}$ : 가계소득,  $X_{11}$ : 자가소유(기준-비자가),  $e$ : 오차항.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표본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1997년과 1998년도로 분리되어 그 특성이 요약되었다. 지역별로 1997년에는 서울이 21.2%, 기타가 78.8%이며, 1998년도 가계는 서울이 17.7%, 기타가 82.3%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1997년과 1998년 40세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은 1997년과 1998년 모두 고졸 이하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직업은 단순근로 및 노무직이 각각 51.3%로 차지하여 하위 근로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1997년과 1998년 모두 3.6세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취업인수도 1997년이 1.5명, 1998년이 1.4명이며, 평균 가계소득은 1997년 2,157,430원이며, 1998년이 1,979,842원으로 나타나 가계 평균 소득이 1998년에는 1997년 보다 8.2%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는 1997년에 자가 44.2%, 비자가가 55.8%이며, 1998년에는 자가가 46.2%, 비자가가 53.8%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가구주 교육정도는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보다 중졸 이하 학력의 비율이 높았으며, 고소득층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 각각 98년 97년 50.7%, 46.7%로 높게 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독립변수		1997년 가구	1998년 가구
		빈도(%)	빈도(%)
가구수		3563명	3721명
지역	서울	756(21.2)	660(17.7)
	기타	2807(78.8)	3071(82.3)
가구주 연령	20대	592(16.6)	583(15.7)
	30대	1374(38.6)	1498(40.2)
	40대	879(24.6)	932(25.1)
	50대	515(14.5)	520(13.9)
	60대 이상	203( 5.7)	188( 5.1)
	평 균	39.88	39.73
가구주 교육정도	중졸 이하	935(26.2)	832(22.3)
	고졸 이하	2318(41.5)	1641(44.0)
	전문대졸 이하	291( 8.1)	292( 7.8)
	대졸이상	861(24.2)	966(25.9)
평 균		12.03	12.36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346( 9.7)	359( 9.6)
	준전문직	502(14.1)	532(14.3)
	사무직	557(15.6)	542(14.5)
	서비스직	329( 9.3)	384(10.3)
단순근로 및 노무직		1829(51.3)	1914(51.3)
가구원수	2명	684(19.2)	671(18.0)
	3명	971(27.3)	986(26.4)
	4명 이상	1908(53.6)	2074(55.6)
	평 균	3.56	3.58
취업인수	1명	2007(56.3)	2313(62.0)
	2명	1293(36.3)	1217(32.6)
	3명 이상	263( 7.4)	201( 5.4)
	평 균	1.52	1.45
가계소득	130만원 이하	717(20.1)	1092(29.3)
	131-200만원 이하	1129(31.7)	1158(31.0)
	201-270만원 이하	809(22.7)	763(20.5)
	271만원 이상	908(25.5)	718(19.2)
	평 균	2157430원	1979842원
주택소유	자가	1575(44.2)	1724(46.2)
	비자가	1988(55.8)	2007(53.8)

1)  $Y_1$ 은 한계소비성향을 위한 회귀방정식 모델이며,  $Y_2$ 는 소득탄력성을 위한 회귀방정식 모델이다.

2) 가구주교육수준은 원 데이터에서는 명목변수로 측정하였지만 회귀분석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속변수로 변환하였다.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수준 0을 0.0001로 처리하였다.

<표 2> 소득계층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독립변수		1998년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1997년
		가구(저)	가구(저)	가구(중)	가구(중)	가구(고)	가구(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가구수		1111명	1078명	1858명	1766명	749명	719명
지역	서울	660(17.7)	167(15.5)	338(18.2)	388(22.0)	160(21.4)	201(28.0)
	기타	3071(82.3)	911(84.5)	1520(81.8)	1378(78.0)	589(78.6)	518(72.0)
가구주 연령	20대	265(23.9)	268(24.9)	273(14.7)	274(15.5)	45( 6.0)	50( 7.0)
	30대	405(36.5)	396(36.7)	841(40.2)	755(42.8)	249(33.2)	223(31.0)
	40대	228(20.5)	219(20.3)	460(24.8)	454(25.7)	244(32.6)	206(28.7)
	50대	117(10.5)	105( 9.7)	235(12.6)	213(12.1)	168(22.4)	197(27.4)
	60대 이상	36( 8.6)	90( 8.3)	49( 2.6)	70( 4.0)	43( 5.7)	43( 6.0)
	평 균	39.06	38.51	38.85	39.04	43.24	44.02
가구주 교육 정도	중졸 이하	386(34.7)	404(37.5)	365(19.6)	424(24.0)	77(10.3)	107(14.9)
	고졸 이하	539(48.5)	489(45.4)	855(46.0)	775(43.9)	241(32.2)	212(29.5)
	전문대졸 이하	69( 6.2)	69( 6.4)	170( 9.1)	158( 8.9)	51( 6.8)	64( 8.9)
	대졸이상	117(10.5)	116(10.8)	468(25.2)	409(23.2)	380(50.7)	336(46.7)
	평 균	11.12	10.77	12.46	12.14	13.9	13.63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13( 1.4)	28( 2.6)	131( 7.1)	119( 6.7)	203(27.3)	194(27.1)
	준전문직	73( 6.6)	78( 7.2)	279(15.0)	263(14.9)	180(24.2)	161(22.5)
	사무직	103( 9.3)	125(11.6)	304(16.4)	308(17.5)	133(17.9)	124(17.3)
	서비스직	175(15.8)	152(14.1)	158( 8.5)	146( 8.3)	44( 5.9)	31( 4.3)
	단순근로 및 노무직	744(67.1)	693(64.4)	982(53.0)	929(52.6)	184(24.7)	207(28.9)
가구원수	2명	343(30.9)	339(31.4)	250(13.5)	264(14.9)	72( 9.6)	81(11.3)
	3명	344(31.0)	334(31.0)	475(25.6)	457(25.9)	164(21.9)	180(25.0)
	4명 이상	424(38.2)	405(37.6)	1133(61.0)	1045(59.2)	513(68.5)	458(63.7)
	평 균	3.18(0.99)	3.16(1.02)	3.69(1.04)	3.65	3.93	3.88
취업인수	1명	890(80.1)	864(80.1)	1111(59.8)	915(51.8)	301(40.2)	228(31.7)
	2명	213(19.2)	206(19.1)	653(35.1)	729(41.3)	349(46.6)	358(49.8)
	3명 이상	8( 0.7)	8( 0.7)	94( 5.1)	122( 6.9)	99(13.2)	133(16.5)
	평 균	1.26(0.44)	1.21(0.42)	1.45	1.55	1.77	1.92
가계소득	평 균	946149원	1124804원	1906330원	2125356원	3716418원	3779933원
주택 소유	자가	328(29.5)	334(31.0)	894(48.1)	777(44.0)	500(66.8)	464(64.5)
	비자가	783(70.5)	744(69.0)	964(51.9)	989(56.0)	243(33.2)	255(35.5)

타났다. 가구주직업을 살펴보면 저·중간 소득층에서는 단순근로 및 노무직 비율이 높았으며, 고소득층에서는 관리전문직 직종이 가장 많았다. 가계소득은 IMF를 전후에서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1997년에 비해 1998년에는 월평균소득이 15.9% 삭감되었으며, 중간소득층은 10.3% 삭감되었고, 고소득층은 1.7% 삭감되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IMF 이후 소득삭감이 고소득층보

다 더 크게 나타났다. 주택소유는 저·중간소득층에서는 비자가비율이 많았으며, 고소득층에서는 자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연도별 전체소비지출 구성비의 비교

IMF 전후인 1997년과 1998년의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의 비교결과는 <표 3>와 같다. 97년도 도시근

〈표 3〉 연도별 소비지출 항목의 구성비 비교

단위 : 원(%), p

	98		97		변화 (98-97)
	전체 (3718)		전체 (3563)		
소비지출	1365165.57	100	1542538.12	100	
식료품	345194.61	25.28	396115.82	25.68	0.4 ↓
외식	115592.47	8.46	149467.42	9.69	1.2 ↓
주거	48100.98	3.52	53332.67	3.46	0.6 ↑
광열수도	72665.74	5.32	67793.68	4.39	0.9 ↑
가구집기 가사용품	49528.96	3.62	64118.62	4.16	0.5 ↓
피복 및 신발	70602.82	5.17	95769.27	6.21	1 ↓
보건의료	56399.56	4.13	60999.45	3.95	0.2 ↑
교육	123979.20	9.08	137527.62	8.92	0.2 ↑
교양오락	53394.36	3.91	69013.05	4.47	0.6 ↓
교통통신	183344.87	13.43	181739.88	11.78	1.7 ↑
기타소비지출	246362	18.04	266669.63	17.29	1.2 ↑

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542,538원이며, 1998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365,165원으로 나타나 IMF 이후 월평균 소비지출은 11.5%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는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는 0.4%p 감소했으며, 외식비는 1.2%p 감소했다. 그러나 주거비는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는 0.6%p 상승했으며, 광열비도 97년보다 0.9%p 증가했다. 가구집기 가사용품비는 98년도에는 0.5%p 감소했으며, 피복 및 신발비도 1%p 감소했다. 보건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0.2%p 증가했으며, 교양오락비는 0.6%p 감소했다. 교통통신비는 1.7%p, 기타소비지출은 1.2%p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도시근로자가구의 1997년도와 1998년도의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동향의 특징은 IMF 이후 선택적 소비지출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외 모든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은 다소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해마다 증가했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즉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육,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은 다소 증가되었다. 박인숙 등(1999)의 연구에서도 IMF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비목은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나타났다. 강이주·성영애(1999)는 교육비의 경우는 지출부담

은 되지만 실제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출의 고정성이나 중요도로 인하여 다른비목에 비하여 행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으며, 특히 지출절감 노력정도가 가장 작은 비목이 교육비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IMF 이후에서도 교육비는 가계의 구성비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광열수도에 대한 지출은 연료비 인상의 원인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교통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PC통신 가입자 증가와 휴대용 전화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교육 및 기타 소비지출은 미비하나마 그 구성비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IMF 이후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sup>3)</sup>

## 2.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성비의 비교

IMF 전후인 1997년과 1998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성비의 비교결과는 〈표 4〉와 같다. 소득계층

3) 실질적으로 소비자물가는 1995년도를 기준(100)으로 했을 때 1997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9.6이며, 1998년도는 117.8로 8.2p 상승하였다.



〈표 4〉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항목의 구성비 비교

단위 : 원(%)

지출항목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98년도(1111가구)	97년도(1075가구)	98년도(1858가구)	97년도(1782가구)	98년도(749가구)	97년도(715가구)						
소비지출	844093.55	100	992873.08	100	1342787.3	100	1519483.50	100	2193593.85	100	2426416.81	100
식료품	243768.88	28.87	286782.53	28.88	350875.61	26.13	400877.67	26.38	481548.02	21.95	548630.04	22.61
외식	64634.52	7.65	93311.99	9.40	116065.10	8.64	151289.18	9.95	190006.51	8.66	229381.47	9.45
주거	48398.73	5.73	50826.27	5.12	41434.80	3.08	46500.17	3.06	64195.73	2.92	74129.71	3.06
광열수도	59410.98	7.03	59934.59	6.04	72692.31	5.41	66409.00	4.37	92260.74	4.20	83060.87	3.42
가구집기 가사용품	24761.93	2.93	33603.47	3.38	45974.03	3.42	58545.32	3.85	95084.66	4.33	123888.42	5.10
피복 및 신발	40642.13	4.81	59913.30	6.03	68064.60	5.06	92911.21	6.11	121340.24	5.53	156756.82	6.46
보건의료	39808.93	4.71	46614.19	4.69	54622.83	4.06	59279.07	3.90	85416.09	3.89	86915.39	3.58
교육	59090.85	7.00	76972.05	7.75	120934.29	9.00	135141.45	8.89	227782.13	10.38	234519.77	9.66
교양오락	26160.67	3.09	38718.78	3.89	53174.16	3.95	66003.35	4.34	94336.60	4.30	122061.47	5.03
교통통신	106620.09	12.63	101342.60	10.21	182987.54	13.62	181124.21	11.92	298038.00	13.58	304151.36	12.54
기타소비지출	130795.84	15.49	144853.30	14.59	235962.03	17.57	261412.88	17.20	443585.13	20.22	462921.48	19.08

별 월평균 소비지출을 97년과 98년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은 15%, 중간소득층은 11.6%, 고소득층은 9.5% 감소했다. 소득별 지출동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별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저소득층은 0.01%p, 중간소득층은 0.3%p, 고소득층은 0.7%p 감소하였다. 외식비는 저소득층이 1.8%p, 중간소득층이 1.3%p, 고소득층이 0.8%p 감소하였다. IMF 이후 식료품비에 대한 저소득층의 가장 작은 감소는 식료품이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비는 저소득층이 0.6%p, 중간소득층이 0.02%p, 고소득층이 0.1%p 상승하였다. IMF 이후 저소득층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게 상승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대부분의 가계는 임차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IMF 이후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와 관련한 금리의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켰음을 예측할 수 있다.

광열수도는 저소득층이 1%p, 중간소득층이 1%p, 고소득층이 0.8%p 상승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른 변동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광열수도에 대한 연료비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가구집기 가사용품은 저소득층이 0.5%p, 중간소득층이 0.4%p, 고소득층이 0.8%p 감소하였다. 피복 및 신발은 저소득층이 1.2%p, 중간소득층이 1.1%p, 고소득층이 0.9%p 감소하였다. 보건의료는 저소득층이 0.9%p, 중간소득층이 0.2%p, 고소득층이 0.3%p 증가하였다. 교육은 저소득층이 0.7%p 감소하였으며, 중간소득층이 0.1%p, 고소득층이 0.7%p 증가하였다. 교양오락은 저소득층이 0.8%p, 중간소득층이 0.4%p, 고소득층이 0.7%p 감소하였다. 교통통신은 저소득층이 2.4%p, 중간소득층이 1.7%p, 고소득층이 1%p 증가하였다. 기타소비지출은 저소득층이 0.9%p, 중간소득층이 0.4%p, 고소득층이 1.1%p 증가하였다. 이렇게 전체 소비지출의 감소는 계층별로 차이가 나지만,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그 증감폭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아 소비항목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IMF 이후 모든 소득계층은 IMF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IMF 이후 소득감소로 인한 비목별 지출 절감노력은 소득의 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지출절감노력의 순위가 높은 비목에 대해서는 고소득

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절감노력 정도는 높게 나타난 성영애·강이주(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감소 비율의 차이는 소득계층마다 상이한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선택적 비목의 감소비율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상대적 비중은 저소득층 가계에서 더 높으며, IMF 이후 저소득층은 교육비와 교양오락비의 삭감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으며, 고소득층에서는 IMF 이후에도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소비지출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가계경제복지의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식료품, 광열수도 등 기본적인 가계의 필수항목에서 예산지분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가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료품, 공공요금 등의 물가상승은 직접적으로 저소득층 가계를 압박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3. 소득계층별 소비결정

본 연구에서는 IMF 전과 이후에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가구원 수, 취업인 수, 가계소득, 주택소유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지역이 기타지역보다 서울일수록,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 직업이 단순근로 및 노무직보다 사무직일수록, 가구원수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주택이 비자가 보다는 자가일수록, 취업인수가 적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MF 이후인 1998년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 가구주연령,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 직업, 가구원 수, 취업인 수, 가계소득이 유

〈표 5〉 가계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변 수	1998년 회귀계수(표준오차)		1997년 회귀계수(표준오차)	
	선형 방정식	양대수형 방정식	선형 방정식	양대수형 방정식
지역(기타)				
서울	70007(21584.1)***		8724(20824.4)***	
가구주연령	6777.2(927.8)***	.226(.023)***	5233.1(967.2)***	.193(0.022)***
가구주 교육정도	15317(4569.4)***	.295(.030)***	4144.1(3691.5)	.1994(0.017)***
가구주직업(사무직)				
관리전문직	93875(35956.7)***		-11351(36218.1)	
준전문직	15467(30215.9)		-12061(30645.2)	
서비스직	9471.3(34500.2)		-8402.4(36015.7)	
단순근로 및 노무직	-52031(26880.8)		-67400(26725.3)**	
가구원수	88787(8028.7)***	.255(.017)***	72770(79762.5)***	.127(0.022)***
취업인수	-50836(14030.5)***	-.026(.015)	-109063(14352.3)***	-.092(0.015)***
가계소득	.3611(0.0082)***	.536(.011)***	0.468444(0.0104)***	.646(.0134)***
주택소유(비자가)				
자가	31415(17944.6)		44741(18833.3)*	
상수	-186300	4,348	33032	3,445
F 값	356.03***	938,769***	371.01***	905,403***
adjust R <sup>2</sup>	0.5122	0.5578	0.5327	0.5692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지역이 기타지역보다 서울일수록, 가구주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직업이 사무직보다는 관리전문직일수록, 가구원 수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인 수가 적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1997년도와 1998년도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변수의 차이점은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 직업, 주택소유여부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1997년 소비지출에서는 가구주 교육정도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지만 IMF 이후인 1998년도 소비지출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은 1997년도 가계지출에서는 단순근로 및 노무직보다는 사무직일수록 가계지출이 증가했으나 IMF 이후에는 사무직보다는 관리전문직일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었다. 즉 IMF 이전에는 사무직근로자의 근로소득의 상승으로 이들 집단에서의 소비성향이 높아져서 가계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IMF 이후에는 사무직보다는 관리전문직일수록 IMF의 영향을 덜 받아서 가계소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계특성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할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1997년 가계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원 수, 취업인 수, 가계소득에 따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98년도의 가계소비지출에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원 수, 가계소득에 따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소비수준이 높다는 두경자(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여기서는 모든 변수의 단위가 1% 증가할 때마다 가계지출이 1%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계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 마다 가계소비지출은 0.536% 증가하였으며, 반면 1997년에는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 마다 가계소비지출은 0.646%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가계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계층에서 1997년에는 가구주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직업이 단순근로 및 노무직보다는 사무직일수록, 가구원 수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가구주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단순근로 및 노무직보다는 사무직일수록, 가구원 수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였다.

중간소득계층에서 1997년에는 기타지역보다는 서울지역일수록 가구주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 직업이 단순근로 및 노무직보다는 사무직일수록, 가구원 수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인 수가 적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인 수가 적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였다.

고소득계층에서 1997년에는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 직업이 단순근로 및 노무직보다는 서비스직일수록, 취업인 수가 적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기타지역보다는 서울지역일수록,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원 수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인 수가 적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표 7>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서 1997년에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했으며, 1998년에는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원 수,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했다.

중간소득층에서 1997년과 1998년에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원수,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취업인 수가 적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했다.

고소득층에서 1997년에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정도,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취업인 수가 적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했으며, 1998년에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원 수,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여기서 가계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소득탄력성은 1997년 0.417, 1998년에는 0.306으로 가계소비지출이 0.111 감소했으며, 중간소득층의 소득탄력성은 1997

〈표 6〉 소득계층별 가계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선형 방정식

	1998년			1997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지역(기타)						
서울	14488(25407.1)	27201(23963.8)	222119(75271.6)**	40247(29039.9)	78666(28439.1)**	102154(81457.3)
가구주연령	794.8(906.1)	7705.3(1141.5)***	17871(3698.8)***	2810.6(1338.3)*	7286.1(1659.2)***	15279(4734.6)**
가구주 교육정도	10404(5176.0)*	15395(5213.0)**	14830(16035.5)	289.4(5197.5)	10415(6429.9)	6564.4(18603.7)
가구주직업(사무직)						
관리전문직	-64146(87497.9)	47042(41764.9)	92738(9993.2)	-52419(85180.9)	-124050(63911.7)	-51020(131310.7)
준전문직	-16643(44864.5)	-17981(32362.3)	45303(95024.5)	16319(57571.8)	-75023(45938.0)	-107259(124298.3)
서비스직	-33227(37690.7)	1421.5(39618.1)	165915(146046.1)	-89683(51229.8)	-32937(56496.7)	-481725(240285.8)*
단순근로 및 노무직	-68502(33311.0)*	-21065(28785.2)	-128647(102449.8)	-83623(41895.9)*	-126949(42233.4)**	-239287(148459.9)
가구원수	74242(9139.2)***	69881(9145.8)***	139447(28914.2)***	68829(13331.5)***	87429(13229.5)***	48906(37372.7)
취업인수	-1184.1(21706.9)	-65548(16026.5)***	-102923(41924.1)*	-30628(32270.1)	-76437(22506.5)***	-146675(53431.9)**
가계소득	32795(0.03507)***	3573(0.0258)***	3114(0.0222)***	414575(0.0485)***	492893(0.0377)***	475608(0.0483)***
주택소유(비자가)						
자가	84044(20654.2)***	14352(19689.2)	-77437(70380.3)	14729(29412.7)	50918(29997.7)	16645(95191.5)
상수	110750	-112582	-510984	198768	-231292	-157834
F값	21.457***	39.238***	28.954***	13.547***	32.726***	15.482***
adjust R <sup>2</sup>	0.1686	0.1847	0.2913	0.1925	0.2656	0.2916

〈표 7〉 소득계층별 가계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양대수형 방정식

	1998년			1997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가구주연령	.077(.041)	229(.033)***	348(.058)***	.124(.055)*	.165(.042)***	.292(.075)***
가구주 교육정도	289(.063)***	.162(.040)***	.320(.065)***	.102(.057)	.091(.039)*	.212(.066)**
가구원수	295(.033)***	.220(.023)***	.251(.042)***	.205(.044)***	.227(.030)***	.104(.055)
취업인수	.037(.037)	-.063(.019)***	-.056(.029)	-.004(.051)	-.087(.024)***	-.097(.042)*
가계소득	.306(.027)***	.580(.036)***	.511(.047)***	.417(.045)***	.798(.052)***	.793(.086)***
상수	7.978	4.079	4.256	6.955	1.391	0.813
F 값	55.555***	104.297***	52.016***	27.724***	77.184***	30.667***
adjust R <sup>2</sup>	0.1973	0.217	0.2543	0.1924	0.2837	0.2771

년 0.798, 1998년에는 0.580으로 가계소비지출이 0.218 감소했으며, 고소득층의 소득탄력성은 1997년 0.793, 1998년에는 0.511로 가계소비지출이 0.2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 가계소비지출의 증가율이 IMF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해볼 때 고소득층이 가장 크게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경자(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그 논문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안정된 가계일수록 IMF이후의 소비수준이 이전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위기를 맞

는 불안감으로 고소득층 가계에서 소비를 크게 억제하고 경기를 관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사회적·문화적 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되고 이에 영향을 받음으로 이와 관련된 아래서 소비지출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IMF 사태로 일컬어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가계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실직과 고용불안으로 소득의 하락 및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가계소득 감소와 더불어 소비가 체감하는 물가상승은 가계지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소득계층별 IMF 전후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근로자가구의 IMF 전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IMF 전보다 15%, 중간소득층은 11.6%, 고소득층은 9.5% 감소했다. 즉 근로자가구의 소득별 특징은 IMF 이후 가계의 소비지출액수는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삭감되었다. 이는 모든 계층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를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소득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마다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구성비의 변화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가계의 필수적인 소비지출 항목인 식료품의 경우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삭감의 비율이 더 컸으며, 피복 및 신발, 교육, 교양오락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 항목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삭감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IMF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복지수준의 감소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1997년도와 1998년도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

치는 가계특성을 살펴본 결과 두드러진 특징은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 직업, 주택소유여부 변수가 1997년과 1998년의 가계지출에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취업인 수, 가계소득 변수는 1997년과 1998년의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교육정도와 가구주 직업은 1998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택소유 변수는 1997년의 가계지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별로도 1997년과 1998년 가계소비지출에 상이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소득계층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1997년과 1998년의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IMF 이후인 1998년의 소득탄력성은 1997년보다 떨어졌으며, 특히 소득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고소득층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 가계지출이 1997년에는 0.739% 증가하며, 1998년에는 0.511% 증가하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 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는 사회의 경기변동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년간 실질 소비증가율은 연간 2%안팎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 나라는 IMF 전후를 비교해볼 때 가계소비지출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불안정한 소비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계에서 소비지출의 비계획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및 미래의 예상소득을 산정하여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무관리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은 그 지출 자체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단순한 파악보다는 소비항목들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가계 복지측면에서 소득계층별 가계지출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관리교육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이나 사회의 계층과 같은 집단별 차이의 분석과 같은 후속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소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소득계층별 가계의 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강이주·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 2) 김영숙(1988). 장기생활설계를 위한 가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59-73.
- 3) 광인숙·송유숙·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IMF 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1호, 121-137.
- 4) 구성열(1982). 가구규모와 연령구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봄호, 84-103
- 5) 김기욱·이승신(1992).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6) 두경자(1999). IMF 관리체제 이전·이후의 가계 소비수준 회복정도과 영향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4호, 87-97.
- 7) 류재술(1992). 적응적 기대(AE)모형에 의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장·단기 소비함수추정-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의 비교연구: 1970-1990년-. 소비자학연구, 3(1), 80-95.
- 8) 배미경(199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 함수 분석. 소비자학연구, 9(4), 83-100.
- 9)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 10) 원종구(1997). 소득계층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17(1), 27-39.
- 11) 양세정(1998). 취업주부의 가계경제기여도 측정 및 맞벌이 요인. 제4회 「통계의 날」기념 세미나: 통계청, 145-173.
- 12)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 53-60.
- 13) 주인숙·양세정(1997).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77-290.
- 14) 최은숙(1986). 가계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최현자(1998). 실직과 가정의 경제적 복지 지원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4회 학술대회, 82-96.
- 16) A.C. Foster, M. Abdel-Ghany & C.E. Ferguson(1981). Wife's employment-it's influence on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 115-124.
- 17) Allen, R.G.D. & A.L. Bowley(1935). Family expenditure. London: Staples.
- 18) Douthitt, R.A. & Fedyk, J.M.(1988). The influence of children on family life cycle spending behavior: The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2, 220-247.
- 19) Fan, J. & Stafford, K.(1994). Determinants of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Consumer Interst Annual, 40, 239-246.
- 20) Hoyt, E.E.(1938). Consumption in our society. New York: McGraw-Hill.
- 21) Lino, M.(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2-18.
- 22) Prais, S.J. & H.S. Houthakker(1971).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
- 23) Robin, M.R., B.J. Riney & D.J. Molina.(1990).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 between one-earner/ dual-earner households: 1972-1973 and 1984.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7, 43-52.
- 24) Veblen, T.(1953).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Mentor.